

거룩함의 회복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1:15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1. 거룩함의 명제

A. 코비드-19와 하나님

불과 3-4개월 동안에 전 세계에 확산된 우한 바이러스 역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종교에 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911 사건이 발생되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두려워 하였지만, 날들이 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죽음에 대한 관심을 점차 잃어 갔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최근의 역병이 휩쓸기 전에 사상 최고의 주식 시가와 사상 최저의 실업률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 호황의 열매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역병으로 인해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심지어는 공원에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등 운동하러 나가는 것조차 못하면서 집에 꼼짝없이 있어야 되니 성경이 많이 팔리고 종말과 관련된 영화나 비디오 프로그램 등을 많이 보게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이번 역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로 받아 들이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발생하는 전쟁, 천연 재해 및 역병 등의 큰 사건들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가 알기 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인간들에게 허용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이시라고 명백히 얘기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범주 안에서 발생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93:1-1] {주}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왕좌는 옛적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창조 때나 지금이나 온 우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왕좌는 견고하며, 그의 통치는 큰 위엄 가운데, 비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발생시키시는 일은 아닙니다. 창조주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인간의 생각과 의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동기로 또는 부주의로 저지르는 전쟁, 폭력, 사고 등은 인간의 책임이지 창조주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창조주께서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세상에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므로 그 악의 세력이 세상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역병 역시 중국의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의 실수로 민간인들에게 번져서 중국에는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고 미국의 정보 기관에서 밝혀 내었지만, 이러한 범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하나님의 암묵적 허용 아래에서 일어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하여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에게 살인을 하려는 생각을 하나님이

심어 주었다고 책임 전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실수와 죄는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두 개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런 사건들이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던, 혹은 건축물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던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죽게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한 바이러스 역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특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1-5] 그때에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B. 하나님과 거룩함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옛날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성도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거룩함 [Holy] 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576번 나옵니다. 구약성서에 402번, 신약 성서에 174번의 구절에 형용사 또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속성은 그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할 뿐 아니라 그 분께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 분은 ‘거룩한 분 [The Holy One]’이시며,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성령]이시며 그분이 거하시는 건물은 성전 또는 성소, 그 분이 좌정하시는 보좌는 거룩한 보좌입니다. 거룩함의 의미는 ‘고유하게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 다르며, 비교될 수 없으며, 대체될 수 없으며, 오염될 수 없으며, 격하될 수 없으며, 혼돈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 분은 홀로 존재하시며, 홀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십니다. 그 분은 거룩한 신이시요, 거룩한 자녀들의 아버지 이십니다.

[시편 89:11]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의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C. 하나님 백성과 거룩함

우리 한국에서는 집안의 가문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왕국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자녀들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라는 의미는 전혀 잘못이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70번의 7번, 즉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은 진실함에 있어서 완전해야 함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바로 그것이 거룩함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넘어져도 일어나 성경의 지침을 따르며, 온 맘과 온 몸의 힘과, 온 목적을 다 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생을 사셨으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자신을 희생하여 대속물로 바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댓가로 구원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요, 보람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본분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크리스찬의 인생에 있어서 할만한 삶인 것이며, 하나님께 바치는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값 없이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이 마음 속 깊은 곳에 진실된 목적을 두고 노력하는 삶의 고귀한 발자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고행의 삶이 아니요, 내 육체 안에, 내 혼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불교는 열반을 위하여 하는 고행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리스찬의 삶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서 매일 나의 혼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지도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참된 크리스찬과 그들의 교회가 이번 코비드-19 역병의 경고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D. 왜 거룩해야 하는가?

이 세상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도덕적 하향 추세를 걸어 왔습니다. 지난 20세기 이후로 더욱 하향 추세가 가속화 되어 간다고 여러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이 추세는 열역학 제2법칙, 즉 모든 자연 프로세스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태, 즉 혼돈과 무질서가 증가하는 상태로 나아간다고 하는 법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노아는 지금부터 약 4300여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적, 도덕적 문란이 매우 심한 폐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과 살아 있는 동물 암수 한쌍씩만을 멸망에서 구출하도록 커다란 배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들 3명과 함께 오늘날 해군의 순양함과 유사한 크기의 배를 건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터키 동부의 아라랏 산 자락에서 노아의 배가 땅에 매몰되어 화석화 된 곳이 미국인 기독교인 고고학자 Ron Wyatt에 의하여 1980년대에 발견되었고, 과학자들이 실험 장비를 통하여 이 유적이 지닌 구조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였고, 터키 정부에서는 그 자리에 노아 방주 기념관을 건설하여 현재도 운영중이라고 합니다.¹ 나는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으며, 땅에서 나온 습기로 식물이 성장하고 생물이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곧 지구를 덮는 큰 홍수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노아의 경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갈 때에 다른 어떤

¹ <https://wyattmuseum.com/discovering/noahs-ark>
www.douglaschemistry.net

사람도 그들과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홍수에 멸망하였습니다. 그 멸망의 흔적이 세계 여러 곳의 지층 구조에서 화석의 형태로 쉽게 확인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명제에는 두가지 근원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왕국에 살려면 그곳에 합당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갔는데 우리의 성품이 그 왕국의 주인과 거주민들의 성품과 잘 맞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어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하는 첫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 구원 받은 후에 우리는 부지런히 거룩하게 되는 훈련과 연습, 즉 성화 과정을 통하여 하늘 왕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둘째로, 노아가 죄 많은 사람들에게 닥아오는 재앙을 얘기하면서 부지런히 방주 건조의 작업을 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생활의 간증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닥아오는 종말의 멧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 같이 도덕적으로 퇴폐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구원의 복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14-15]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E.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이 거룩해야 하며, 그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목사를 ‘먹사’라고 할까요? 성도와 교회 모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근원적 이유는 ‘거룩함’의 정의와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실천할 마음이 결여된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거룩함의 근본 의미는 ‘성스럽게 구별됨 [separated for a special purpose]’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내어 선택하여 왕의 가족,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신 ‘부르심 [Calling]’을 망각한 것이 아닙니까? 역사 드라마를 보면 이조 시대에 개망난이처럼 살았던 왕자나 대군들도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왕실의 일원으로 체면을 지키고 정해진 도덕적 규범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모범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은 도덕적으로 퇴폐한 생활을 하니가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득 당하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그들은 성도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2. 거룩함 상실의 원인과 결말

A. 기복주의와 혼합주의

성도나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까? 우리의 의도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처럼 매사를 열심히 하는 나라는 보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주일이면 교회당들이 수 많은 교인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에게 복 받기 위하여 헌금과 십일조를 충실하게 바치며 노방 전도와 방문 전도, 그리고 해외 선교 활동에 헌신하면서 이런 모든 노력이 하늘에 상을 쌓는 일이니까 나중에 하늘 나라 가서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얻을 것으로 굳게 믿는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부지런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에서 거룩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과 세상적 풍조가 많이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어떤 연유로, 무슨 경로로 그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 첫째 원인은 한국민의 기복주의 사상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역사는 수많은 외침에 의한 수탈과 서민층의 경제 사회적 침탈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엄격한 계급 사회 구조와 무자비한 지배 계층의 서민층에 대한 압제와 수탈은 대다수 하층 계급, 즉 농민층과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쉽게 무속 신앙, 불교, 자연 숭배 등에 이끌려 이생 동안에 자신들이 아니면 자식 세대라도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기복 신앙이 한국민의 정신 세계에 큰 지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35 년간의 일제 압제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하늘의 축복으로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민주 국가가 되었고 자유 시장 경제 체제로 인해 선천적으로 부지런함에 바탕을 둔 기복 신앙적 노력으로 이제 세계 10 대 경제 대국의 세계에 유래 없는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복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경쟁 사회 체제에서 살아남고 이웃 사촌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과거에 고을 원님처럼 남을 호령하는 권세를 누리려면 하늘의 복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 강박 관념이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기복 신앙이 깊숙히 깔린 사회의 바탕 위에 성장해 온 것이며, 불행히도 성경에 바탕을 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지 못한채 외형만 성장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 두번째 원인은 소위 혼합주의 [SYNCRETISM] 풍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한 주 원인이었는데, 그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도 경배하지만 이방 신들도 동시에 경배하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 즉 하나님께서 매우 강조하면서 십계명에서 금지하신 이방신 우상 숭배를 겸하여 행하는 버릇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이방 신에게 복을 비는데 훨씬 더 치중하는 이중적 신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한 부인이 남편에게는 내조를 하는 척 하면서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서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8]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 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혼합주의적 신앙 생활을 간음 행위와 창녀짓으로 보셨고, 여러 대언자 [代言者]를 보내어 그 폐퇴함을 나무라시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방신 숭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유배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혼합주의적 신앙이 어떠한 재앙을 가져오는가를 온 민족이 심각하게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 이방신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하나의 혼합 신앙적 요소가 있었으며,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선적 신앙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수백개 만들어 놓고 이를 온 백성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마치 이 규정들을 지키면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소위 율법주의 [LEGALISM]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율법의 정신을 잃어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외적 요소만 강조하고 내적인 혁신과 영적인 재생은 모르는 위선자들로 마치 회칠한 무덤에 비교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그런 종교 지도층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능력있는 사역과 말씀을 질투하고 미워하여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27-28]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크게 떠들지만 새벽 기도, 헌금과 십일조 등의 외형적 규정을 강조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로 삼아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군중 심리를 몰아 목회자를 우상화 하고, 영적 중생 대신에 교회 외형적 성장과 교회당 건물 위주, 각종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 운영을 통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대신에 요란한 현대 록엔롤 음악에 한바탕 신나는 스트레스 풀이 시간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비성경적 괴물 교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목회자는 재산 축적이 주 관심이고 때로는 여성 성도들과 불미스런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충족하는 개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상실한 이런 혼합주의 교회들이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B. 구원의 상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그들이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복음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에게는 언제나 아들 또는 딸인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성경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그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자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탐닉하여 사탄의 설득에 빠져 그의 손아귀에 우리 영혼을 팔게 된다면 가롯 유다의 결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회개를 통하여 유용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와 같은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자신을 멸망의 길로 팔아버림으로써 구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번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됨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23-28]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25 집 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26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27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으로서, 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당연히 마지막 때에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므로 쫓겨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교도 하고 많은 봉사 활동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생활, 기복주의에 붙잡힌 생활, 혼합주의에 빠져 물질과 쾌락과 절제 못하는 욕심을 추구하는 생활을 한다면 성도이건 목회자이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10-11]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사도 유다가 언급한 멸망한 사람들,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비방하고 본능에 따라 살고 그럼으로써 부패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발람은 이방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이었지만 발락왕의 사주를 받아 큰 댓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고라 역시 물질에 탐이 나서 거룩함을 상실하여 그와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이 원래 사탄의 자식들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옳바로 만들려고 그를 질책하신 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인, 발람, 고라는 원래는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녀가 아닌데 왜 질책하고 옳바로 만들려고 하셨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탕자의 영적 상태에 관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22-24]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버지는 탕자 아들이 집으로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집을 떠나 허랑방탕 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죽은’ 상태이었고 ‘잃어버린’ 상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를 저버린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교회가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기다리심을 찾아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5]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버리시고 자신의 진노의 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것이며 오직 진노의 하나님, 공의를 집행하시는 준엄한 재판장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3.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종말의 징조가 충분히 발생해 왔습니다. 20세기 이후 전쟁과 기근, 각종 역병과 국가간의 갈등, 성적 타락과 생명의 경시, 가정과 결혼 생활의 심각한 파괴,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에 대한 거부, 가정과 학교와 언론과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와 타락, 성적 기준의 몰락과 반진리 및 허위의 보편적 용납, 세계 정부 수립 운동의 확산, 각종 우상 숭배와 성경적 교리의 거부와 소위 현대적 해석으로 인한 분열의 조장, 단일 종교로의 통합 운동의 확산, 극단 모슬렘 주의자들에 의한 국제적 테러의 확산,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의 확대 등 인간 사회의 퇴폐 상황은 노아 시대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전조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창세기 6:5]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베드로후서 2:4]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오늘날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아직도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 뿐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함을 잃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의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심과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신 것이 오늘날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옛날 홍수와 불로 멸망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처럼 오늘날 죄 속에 빠져 사는, 거룩함을 잃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의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때에 참된 성도가 많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성도들이여, 목회자들이여! 모두 거룩함의 회복 운동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실 때에 기쁨으로 교회를 추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벗어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지성소에 매일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배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옷입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광스런 휴거의 날을 산 소망으로 고대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무리와 함께 참되게 그분을 경배하기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5: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